

# 마키아벨리의 『君主論』 批判:

## 韓國政治狀況과 관련한 小考

安完起\*

— 목 차 —

- I. 머리말
- II. 韓國政治狀況과  
『君主論』저술 당시의 이탈리아 政治狀況
- III. 마키아벨리(Machiavelli)의 『君主論』 批判
  - 1. 統治術
  - 2. 人間觀
  - 3. 國家觀
  - 4. 運命論
- IV. 韓國의 政治狀況에 『君主論』이 주는 敎訓
- V. 맺음말 <참고문헌>

### I. 머리말

오늘날과 같은 政治的 混沌의 時代에 어떤 思想을 批判함에 있어서는 保守的이든 進歩的이든, 學術的 -특히 政治思想的- 이든, 그 모든 先入觀的 前提를 제쳐놓고 '開放된 精神'으로 批判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마키아벨리의 『君主論』을 批判함에 있어서 時代的·空間的 아무런 前提없이 批判하는 것만이 그 적실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開放된 思考'란 모든 것을 包容할 수 있는 白紙狀態를 말한다. 그러므로 마키아벨리(Machiavelli)의 『君主論』과 "韓國政治狀況"의 관계는 主題範圍에 있어서 '開放된 思考'의 限定된 側面을 露呈하고 있을 지라도, 마키아벨리의 『君主論』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처한 韓國政治狀況을 考察해 보는 것은 이러한 思考의 一面을 構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歷史的 客觀性이란 反復될 수 없는 事實性을 가진 過去의 再構成이 아니라, 繼續되고 있는 現在의 狀況에 비추어 바라보는 過去의 眞理다. 그러므로, 現 狀況에

\*전북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지방자치연구소 연구원

서 만일 마키아벨리의 『君主論』을 直視할 수 없다면, 韓國政治狀況과 관련하여 마키아벨리의 『君主論』을 批判한다는 것은 本質적으로 期待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우기, 마키아벨리가 유럽 政治思想의 主流的 傳統 밖에 있음에도 不拘하고<sup>1)</sup> 그에 대하여, ① 共和主義的 自由主義者로 보려고 試圖하며, ② 그의 現實主義的 態度를 높이 評價하여 “偉대한 天才”로 단정지우고, ③ 民族主義가 興起하자, 그는 “열렬한 民族主義者”로 民族主義 時代의 豫言者로 變形되었으며, ④ 現代國家 理念 및 近代政治學의 先驅者로 肯定的 評價를 내린다는 事實에 얽매인다면 더욱 그러하다.<sup>2)</sup>

그러나, 現代의 韓國政治狀況이 반드시 過去의 政治狀況보다 나은 것은 아니며, 때로는 어떤 경우의 政治的 狀況이 過去의 어느 사실과 類似한 경우가 있다. 특히 長久한 時間 間隔에도 不拘하고 過去의 사실이 거의 같은 狀況으로 表出되는 수가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오늘의 우리 政治狀況과 마키아벨리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원하지 않는 狀況 및 사실의 展開와 우리 政治狀況이 맞아 떨어진다 는 점과 관련하여 그의 『君主論』에 대한 批判을 해볼까한다.

이 글은 마키아벨리의 『君主論』을 韓國政治狀況, 특히 統治權者<sup>3)</sup>로까지 불리우는 대통령과 관련하여 批判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루는 內容은 時代的 背景을 중심으로 한 그의 主要 著書인 『君主論』을 중심으로 마키아벨리의 가장 큰 關心事라할 수 있는, (1) 統治權과 權力의 行使에 대한 問題, (2) 人間觀, (3) 國家에 대한 問題, 그리고 (4) 運命에 대한 見解를 批判·分析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批判·分析을 통하여 마키아벨리의 『君主論』이 現 韓國政治狀況에 주는 敎訓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이에 대해서는, 김홍명 譯, J. 플라르나츠 著, 『政治思想史』(서울: 도서출판 풀빛, 1986), 35~46쪽 참조.
- 2) 金飛煥, “마키아벨리 政治思想의 르네상스적 성격,”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首善論集』, 第 10輯(1985), 226~228쪽; 具永壽, “마키아벨리의 政治思想에 關한 小考,” 동의대 地域社會開發研究所 外, 『東義法政』, 第 5輯(1989), 211~212쪽 참조.
- 3) 본인은 韓國政治狀況과 관련하여 마키아벨리가 『君主論』에서 칭한 “君主”에 相應하는 용어로 ‘支配者’ 혹은 ‘統治權者’란 용어를 사용함.

## II. 韓國政治狀況과

## 『君主論』저술 당시의 이탈리아 政治狀況

16世紀 初의 유럽에서는 絶對 君主制가 形成되었거나, 아니면 形成되어 가는 過程으로 絶對王制는 적나라한 權力을 背景으로 했고, 中世의 制度에 대해서는 破壞的이었다. 정치적 기술은 權謀와 術數를 그 特徵으로 하여, 일면에 있어서는 中世의 權力이 分裂되었던 것을 收奪하여 國家權力을 主權化하고 民族의 統一을 가능케 하였다.<sup>4)</sup> 그러나 마키아벨리가 生存한 당시 이탈리아는 다른 民族國家와는 달리 半島 全體를 統一할 만큼 強力한 君主의 出現도 없이 남부의 나폴리 王國(the Kingdom of Naples), 북서부의 밀라노 공국(the duchy of Milan), 북동부의 貴族 共和政 베니스(the aristocratic republic of Venice), 중부의 플로렌스 共和國(the republic of Florence)과 교황령(the Papal State) 등 다섯 개의 國家로 分割되어 있었다.<sup>5)</sup> 마키아벨리는 당시의 대부분의 이탈리아인들과 마찬가지로, 특히 이러한 事態에 대한 責任이 教會에 있다고 생각했다. 즉, 교황 스스로가 이탈리아를 統一하기에는 너무 힘이 약하면서도 다른 어떤 統治者가 이탈리아를 統一하는 것을 妨害하기에는 充分할 만큼 強하였으며, 교황의 國際的 關係는 그로 하여금 外勢 介入을 招來하는 못된 政策의 首長으로 만들었다.<sup>6)</sup> 즉, 교황은 그의 교황령에 대한 統治를 維持하기 위해 統一을 妨害하였으며, 權限밖의 干涉으로 이탈리아 領土에 대한 權力을 獲得하기 위한 野心으로 다른 것에 對抗케 했다.<sup>7)</sup>

4) 鄭仁興, 『政治思想家評傳』(서울: 養英閣, 1983), 175쪽.

5) George H. Sabine, & Thomas L. Thorson, *A History of Political Theory* 4th ed. (Hinsdale, Illinois: The Dryden Press, 1973), p.315; 成裕普·車南姬 譯, 『政治思想史』(서울: 한길사, 1992), 451쪽.

6) G. H. Sabine, & T. L. Thorson, 1973, 앞의 책, p.315~316; 成裕普·車南姬 譯, 1992, 452쪽. 특히,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事實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이탈리아를 支配할 만큼 強力하지도 못하면서 어떤 다른 勢力이 이탈리아를 統一하도록 내버려두지도 않는 教會는 이탈리아가 1인의 首長 아래 統一되지 못하고 항상 수많은 君主와 領主 아래 머물러 있게 한 原因이 되어왔으며, 바로 이것이 이탈리아를 너무나 反目케 하고, 虛弱하게 하여 이탈리아로 하여금 強力한 야만인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를 攻擊하려 했던 아무에게나 희생물이 되게끔 하였다.” C. E. Detmold가 *The Historical, Political, and Diplomatic Writings of Niccola Machiavelli*, 4 vols(Boston & New York, 1891)에서 영역한 Machiavelli의 *Discourses on the First Ten Books of Titus Livius*, 452쪽. G. H. Sabine, & T. L. Thorson, 1973, 앞의 책, p.316; 成裕普·車南姬 譯, 1992, 452쪽에서 再引用.

이와 比較하여, 韓國政治狀況은 韓半島를 統一할 만큼 強力한 統治者의 出現도 없이 南·北韓으로 갈리어 休戰狀態에 있으며, 또한 南韓은 地域感情으로 호남·영남·충청·강원·경인 등 크게 5대권역으로 分裂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sup>7)</sup> 더우기 北韓 사람보다도 호남 사람을 더욱 拒否하는 現象은<sup>8)</sup> 그 極致를 나타내는 實例라 할 수 있다.

또한, 이탈리아인들은 別반대급부도 없이 暴君의 頹廢와 暴壓을 呑씩 겪었으며 暴君들간의 割據로 이탈리아는 프랑스인·스페인인·독일인들의 犧牲物로 남겨져 있었다.<sup>9)</sup> 즉, 이탈리아의 경우는 유럽의 列強이 政治的으로 介入함으로써 分裂은 더욱 加熱되어 各국의 政治的 運命이 列強에 의해 左右되었다. 당시 베니스共和國은 아드리아해를 중심으로 海上貿易을 發達시켜 經濟的으로 富強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지적 중심지였으며, 經濟的인 富를 바탕으로 強力한 海軍을 保有하여 사실상 이탈리아 半島에서 最大의 強國으로 行세하였다. 弱小國 밀라노, 나폴리, 프로텐스는 3國同盟을 맺고, 強力한 海洋 都市國家인 베니스에 對抗하여 勢力均衡을 이루면서 이탈리아 半島는 한동안 平和를 維持하였다. 그러나 1492년 밀라노가 3國同盟에서 離脫하여 프랑스가 提携하면서부터 이탈리아 半島의 勢力均衡은 무너지고 政治·社會的 不安은 물론 外國軍을 불러 들여오는 混亂한 狀態를 惹起시켰다.

마키아벨리 당시의 이탈리아는 지적으로 뛰어나고 예술적으로 創意的이었으며, 유럽 그 어디보다도 權威의 桎梏으로부터 解放되었고 또 冷徹한 合理的 내지 經驗的 정신으로 세계를 대할 태세를 갖춘 社會였으나, 한편으로 이탈리아는 최악의 政治적 부패와 道德的 墮落의 犧牲物이 된 社會였다.<sup>10)</sup>

따라서, 殘酷과 殺人은 政府의 正常의 手段이 되었고 善良한 믿음과 信義는 開

7) Raymond G. Gettell, *History of Political Thought*(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24), p.138.

8) 이러한 事實에 대해서는 13대 대선과 총선에서, 특히 대통령후보자와 그 出身地域과 관련된 候補者의 地域別 得票 集中率 및 政黨·地域別 議員集中率이 分明하게 드러내고 있다. 拙稿, 安完起, “韓國政治에서 平和民主黨의 特性에 관한 研究,”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1. 2. 22.), 54~55쪽 참조.

9) 한국일보, 1989년 3월 17일 13면 참조.

10) G. H. Sabine, & T. L. Thorson, 1973, 앞의 책, p.316; 成裕普·車南姬 譯, 1992, 452쪽.

11) G. H. Sabine, & T. L. Thorson, 1973, p.316; 成裕普·車南姬 譯, 1992, 453쪽.

明된 사람이라면 거의 입술에도 울리지 않는, 어린애나 느끼는 良心의 呵責처럼 되었으며, 힘과 才能이 成功의 열쇠가 되었으며, 放蕩과 歡樂은 너무나 잦아 言及조차 할 必要가 없게 되었고, 적나라하고 露骨的인 利己主義는 오직 成功만 하던 그 正當性이 認定되었다. 이것은 실로 '악당들과 冒險家들의 時代'라고 부를 만한 時代였으며, 그 社會는 마치 "人間은 法律과 正義로부터 遊離되었을 때는 모든 動物 중에 가장 나쁜 動物이 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警句를 立證하기 위해 나타난 社會처럼 보였다.<sup>12)</sup>

韓國政治狀況은 비록 韓國이 韓半島를 중심으로 하는 海洋進出을 통한 中心地 役割은 하지 못하였다해도 1945년 日帝殖民地로부터 解放과 더불어 38도선을 境界로 한 美軍과 소련군의 進出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탈리아의 狀況과 類似하다할 것이다. 더우기 韓半島에서의 1950년 韓國戰爭은 韓半島의 政治·經濟·社會的 不安은 물론 新帝國主義에 의한 새로운 從屬의 狀態를 잉태할 수 밖에 없는 動機가 되었다.

이는 韓國政治狀況을 마키아벨리적 政治秩序에로의 編入을 加速化시켰으며, 韓半島의 混沌과 無秩序는 마키아벨리의 見解에 대한 肯定的 評價를 可能케 했다.<sup>13)</sup>

따라서 마키아벨리가 만일 오늘의 韓國政治狀況 속에 現存한다면, 그는 對外的으로 새로이 登場한 新帝國主義的 自國利益優先主義<sup>14)</sup>의 膨脹과 對內的으로 韓半島의 政治的 不安과 無秩序를 목격하고 韓半島의 統一國家를 形成하기 위한 強力한 統治者의 出現을 期待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時·空間을 超越하여 類似하게 持續하고 있는 韓國政治狀況과 관련하여 마키아벨리의 『君主論』에서 提起하고 있는 여러 가지 肯定的인 洞察에도 不拘하고 다음 장에서 論議할 그의 統治術·人間觀·國家觀·運命論과 관련하여서는 批判的 餘地가 있다.

12) G. H. Sabine, & T. L. Thorson, 1973, p. 316~317; 成裕普·車南姬 譯, 1992, 453쪽.

13) 특히, 韓國政治狀況과 관련하여 마키아벨리의 『君主論』에서 肯定的 評價를 내려야할 分析은, ① 軍備의 重要性, ② 軍兵에 있어서 勇병의 百害無益性, ③ 外國 援兵의 危險性에 대한 主張이다. 각각에 대해서는, 林明芳·韓昇助 譯, 『君主論·리바이어던』(서울: 三省出版社, 1985), 제 10장~11장 및 14장; 제 12장; 제 13장 참조.

14) 本人은 現國際政治秩序 속에서 各國의 國益(National Interest) 追求를 自國利益優先主義라 칭함.

## Ⅱ. 마키아벨리(Machiavelli)의 君主論 批判

### 1. 統治術

機會 捕捉能力과 機會 活用能力을 君主는 가져야 한다는 것을 強調한<sup>15)</sup> 마키아벨리는 새로운 君主의 行動指針을 다음과 같이 力說하고 있다.

- (1) 敵으로부터 自身을 保護할 것(to secure himself against enemies),
- (2) 同調者를 糾合할 것(to gain friends),
- (3) 힘에 의하건 詐欺에 의하건 간에 征服할 것(to conquer by force or fraud),
- (4) 國民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동시에 두려워 하도록 만들 것(to make himself be loved and fearce by the people),
- (5) 軍隊로 하여금 君主를 따르고 尊敬하도록 할 것(followed and revered by the soldiers),
- (6) 자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없애버릴 것(to destroy those who can and may injure him),
- (7) 옛 慣習속에 새로운 革新을 導入할 것(introduce inovations into old customs),
- (8) 嚴格하면서도 친절할 것(to be severe and kind),
- (9) 寬大하면서도 開放的일 것(magnanimous and liberal),
- (10) 옛 軍隊를 除去하고 새로운 軍隊를 組織할 것(suppress the old militia, create a new one),
- (11) 자기에게 이롭고, 자기를 해치는데 두려움을 가진 國王이나 君主와 友好的인 관계를 維持할 것(maintain the friendship of kings princes in such a way that they are glad to benefit him and fear to injure him).<sup>16)</sup>

이상에 대한 批判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에 마키아벨리의 人間觀에서 具體的으로 論하겠지만, 마키아벨리는 첫째로 敵에 대한 概念을 자기를 해칠 수 있고,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고 함으로써 人間을 邪惡한 存在로 보는 그의 人間觀과 모

15) 林明芳·韓昇助 譯, 1985, 앞의 책, 46쪽.

16) 林明芳·韓昇助 譯, 1985, 앞의 책, 52쪽 및 Niccolo Machiavelli, *The Prince and The Discourses*, translated from the Italian by Luigi Ricci, Revised by E. R. P. Vincent(New York: The Medern Library, 1950), p.30 참조.

순을 드러낸다. 즉, 敵을 把握함에 있어서는 同調者와 非同調者라는 區分만으로는 未洽하다.

마키아벨리의 人間觀이 아닌 統治術만으로 입한다면, 1979년 10·26사태와 같은 統治者 個人的 悲運은 繼續해서 反復될 지도 모른다. 朴대통령은 그의 敵도 아니요, 同調者 이상인 忠僕으로부터 殺害되었는데 마키아벨리는 敵의 區別 및 對處하는 方法에 關於 明白한 提示를 하지 못하였다. 또한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 征服을 力說함으로써 한 순간 내지는 個人的 한 生涯만으로 限定된 時間 및 空間에 머물렀다. 사실상, 問題는 征服 내지는 權力 爭取가 아니라, 그 이후가 問題인 것이다. 5·16 및 5·17 軍事쿠데타에 의한 統治權 掌握은 正統性 缺如 내지는 그 方法의 無慈悲性으로 인하여 韓國政治狀況은 얼마나 不安定하였는가는 周知의 事實이다. 어느 정도 正常的인 思考라도 가진 統治者라면, 혹은 統治者였다면 그들의 心理는 不安에 떨어야 함이 當然하다 할 것이다.

특히, 마키아벨리는 『君主論』 제 15장 人間에서 “君主가 讚揚받거나 非難받는 몇 가지 理由”라는 題目으로부터, 제 18장 “君主는 어떻게 信義를 지킬 것인가”라는 장을 통하여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sm)이라고 通稱되는 權謀術數을 主張하고 있다.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命題로 해서 人間이 실제로 살고 있는 實態를 놓친다면, 이는 자기를 保存하는 것이 아니라 破滅에 빠뜨리게 한다고 보았다.<sup>17)</sup> 마키아벨리의 主張에 의하면 자기를 保存하려는 君主는 善人도 惡人도 될 줄 알아야 하며, 무릇 君主라는 자는 최소한 자기의 나라를 잃게 할 수치스러운 惡德만은 피하여야 한다. 다른 惡德들도 可能하다면 피하여야 하겠지만, 어떤 때는 몇 가지 缺陷을 짊어져야만 나라를 危機에서 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事物을 잘 살펴볼 때 一見 美德으로 보이는 몇 가지 資質도 君主를 破滅로 이끌 수 있으며, 또 첫눈에는 惡德으로 보이더라도 結果적으로는 君主의 安全과 策榮을 얻게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sup>18)</sup> 이것은 결국 美德과 惡德의 資質 兼備를 통하여 最善의 統治와 次善의 統治를 모색하고, 美德과 惡德을 完全하게 兼備한 統治者를 理想으로 여긴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이와 같은 具體的인 統治者로 스페인의 페르디난드(Ferdinand), 프랑스의 루이 11세(Louis XI), 영국의 헨리 8세(Henry VIII)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한다.<sup>19)</sup>

17) 이러한 見解와 관련된 適切한 實例를 解放과 더불어는 韓國政治狀況의 始發에서 든다면, 김구는 그의 行動에는 當爲의 基準이 있음을 明白히 하여 韓獨黨의 切實한 議席 確保 豫想에도 不拘하고, 5·10選舉에의 參與 可能性을 廢棄하였으나, 이 때를 분수령으로 김구의 勢力은 南·北韓 그 어느 곳에서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急激히 消滅된 것을 들 수 있다.

18) 林明芳·韓昇助 譯, 1985, 앞의 책, 72~73쪽.

마키아벨리는 權謀術數의 眞髓를 다음과 역설한다.

“싸움에 있어서는 두 가지 方法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道理에 의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힘에 의한 것이다. 전자는 人間 本然의 길이며, 후자는 本來가 野獸의 짓이다. 君主는 짐승과 人間을 巧妙히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중 어느 한쪽을 결하더라도 君位를 오래 維持할 수 없다. 君主란 野獸의 性質을 배울 必要가 있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 특히 여우와 사자의 性質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그것은 사자는 策略의 陷穽에 빠지기 쉽고, 힘에 있어서 여우는 늑대를 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陷穽을 알아차림에는 여우라야 하고, 늑대의 魂을 빼려면 사자라야 한다. 그저 사자의 勇猛만을 내세우는 자들은 拙劣하다. 그러기 때문에 무릇 名君이라 할 자는 信義를 지키어 도리어 자기에게 害가 돌아올 경우, 또한 約束을 맺을 당시의 動機가 이미 없어졌을 경우에는 信義를 지키려 하지도 않을 뿐더러 信義를 지켜서는 不된다.”<sup>19)</sup>

이러한 마키아벨리의 統治術은 다음의 3가지 경우 등에 있어서나 可能할 것이다. 즉, ① 絶對君主下에서 支配와 被支配關係가 明白하고, ② 統治者の 統治는 오직 一方的, 獨斷的이고, ③ 統治받는 이 - 治者와 被治者가 相互 委任을 통한 경우 - 가, 統治者가 사자와 여우의 性質을 동시에 구사하는 統治를 하고 있다는 事實을 모를 경우에는 可能할 것이다.

統治者가 武力統治를 행할 경우에는 그가 信義 내지는 公約을 履行하지 않는다 하여도, 그는 權力을 享有하고 利益을 追求할 지 모른다. 그러나, 權座로부터 물러나는 순간부터 名·善人으로부터는 惡人으로 評價받음을 韓國政治는 적나라하게 例證하고 있다. 또한 暴力政治를 통한, 혹은 체계모니를 掌握한 者의 無所不爲 내지는 主觀的 合理主義<sup>20)</sup>에 의한 人間 相互間의, 특히 統治權者에 대한 不信은 韓國政治를 더욱 不確實性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였다는 데에서 마키아벨리의 統治術은 批判을 면키 어렵다.

19) G. H. Sabine and T. L. Thorson, 1973, 앞의 책, p.324; 成裕普·車南姬 譯, 1992, 앞의 책, 463쪽.

20) 林明芳·韓昇助 譯, 1985, 앞의 책, 78~79쪽.

21) “合理主義” 앞에 ‘主觀的’이라는 修飾語가 붙어 있는 경우에 實質的으로는 合理主義를 喪失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체계모니를 掌握한 者가 그것의 占有 및 行使期間 동안에는 말 그대로 ‘道理와 理性과 論理가 일체를 이루는 것’처럼 認定하도록 혹은 認定되어진다 할 지라도, 時·空間의 흐름과 더불어 체계모니의 喪失속에서 “合理主義”로 포장되었던 것이 그것의 道理와 理性과 論理를 喪失하게 된(혹은 될) 경우 그것은 “主觀的 合理主義”라 할 것이다.

## 2. 人間觀

마키아벨리는 人間에 대한 그의 見解를 매우 多樣하게 記述하고 있는데, 그가 다른 人間은 經驗에서 나온 人間論이다. 그의 政治思想은 當爲的 存在로서의 人間보다 現象的 存在로서의 人間에 關心을 가지고 있었다.<sup>22)</sup> 즉, 當爲的 政治가 아니라 現實政治에 대한 常識的 또는 實在的인 觀察로, 現實的 政治行動의 規準을 提示한 것으로서<sup>23)</sup> 人間の 經驗과 能力의 限界內에서 實現 可能한 政治思想이다. 豫測할 수 없는 人間の 運命, 政治世界에 있어서 끊임없는 人間の 私慾과 悲慘이 그의 思想이 立脚하는 決定的 前提인 것이다.<sup>24)</sup>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人間은 自己主張的(self-assertive)이다. 그는 神의 恩寵이나 人間の 目的보다 더 큰 것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安全을 追求하고 나아가 그 安全을 느끼려는 所謂 自己充足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는 名譽를 追求하고 野心을 이루며 다른 사람에게 印象的인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려고 한다. 스스로의 힘이 강해질수록 人間은 名聲을 위해서 기꺼이 安全을 犧牲하려고 한다. 人間이란 自己 保存의이며 自己主張的이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이 두 慾求 가운데 후자에 더욱 감명받았다.<sup>25)</sup>

따라서, 마키아벨리가 비록 사람을 評價하는데 있어서,

- ① 이 사람은 친절한데, 저 사람은 慾心이 많다든가,
- ② 저 사람은 殘忍한데, 이 사람은 慈愛心이 많다든가,
- ③ 저 친구는 말뿐인데 반하여, 이 친구는 信義가 두텁다든가,
- ④ 저 사람은 柔弱하고 겁이 많은데, 이 사람은 斷乎하고 勇氣가 있다든가,
- ⑤ 저 사람은 好人인데, 이 사람은 傲慢하다든가,

22) 김홍명 譯, 1986, 앞의 책, 37쪽.

23) 琴鍾友, "Machiavelli思想에 있어서 道德問題에 關한 一考察," 경북대학교, 『논문집』, 제 6집(1962.12.), 541쪽.

24) 마키아벨리의 特性이란 그가 人間の이고 世俗的인 것에만 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홍명 譯, 1986, 앞의 책, 45쪽. 따라서, 마키아벨리가 『君主論』에서 提起하고 있는 가장 主要한 質問은, "強力하고 持續的인 王政을 세우기 위해 人間에 必要한 資質과 그가 使用할 方法은 무엇인가?"라는 質問 그 自體이다. 김홍명 譯, 앞의 책, 54쪽.

25) 김홍명 譯, 1986, 앞의 책, 26쪽.

- ⑥ 저 쪽은 방탕한데 비하여, 이 쪽은 節操가 있다든가,
- ⑦ 저 자는 率直한데, 이 자는 狡猾하다든가,
- ⑧ 저 사람은 힘들지만, 이 사람은 쉽다든가,
- ⑨ 저 자는 무게가 있으나, 이 자는 輕薄하다든가,
- ⑩ 저 사람은 宗教的인데 반하여, 이 사람은 信心이 없다든가<sup>26)</sup>

兩分法을 使用하였지만, 그는 人間性에 대하여 悲觀的인 見解를 취한다.

즉, 그의 人間觀은 다분히 性惡說的 立場이기 때문에 人間の 支配에는 힘에 의한 強制가 必要하다고 보았다. 여기서 그의 政治思想의 한 부분인 法律과 權謀術 數라는 요소가 대두된다. 強力한 支配者가 強制로 國家의 統一을 實現할 수 있으며, 法律로서 人間을 抑制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7)</sup> 요컨대 마키아벨리가 그의 많은 同時代人과 같이 일반적으로 人間性에 대하여, 특히 權力鬭爭 過程에서 懷疑的인 見解를 가진 것은 당시의 狀況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부자연스런 것만은 아닌 것으로 이 때의 懷疑主義는 悲觀主義와 冷笑主義에 통한다.<sup>28)</sup>

마키아벨리는 人間을 원래 은혜도 모르고 변덕이 심하며, 僞善者요, 염치도 모르고, 몸을 아끼고, 物慾에 눈이 어두운 俗物로 규정한다. 그래서 당신이 恩惠를 베푸는 동안은 모두가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며, 피(血)도, 財産도, 生命도, 아들마저도 당신에게 바친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정작 危險이 닥치게 되면 그들은 금방 등을 돌린다는 것이다. 더우기 人間은 두려워하는 자보다도 愛情을 느끼는 자를 더 쉽게 배반하는데, 그 이유는 원래 人間이 邪惡하여 단순히 義理의 基盤에 매인 情같은 것은 자기의 利害가 얽히는 機會 앞에서는 언제나 서슴없이 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앞에서는 처형의 恐怖로 꼭 얽매어 있기 때문에 결코 모르는 체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sup>29)</sup> 특히, 그에 의하면 人間이란 어버이의 죽음은 쉬 잊을 수 있어도, 자기 財産의 損失은 여간해서 잊기 어려워하는 법이다.<sup>30)</sup> 또한 人間은 邪惡한 것이어서 당신에 대한 信義를 충실히 지켜주지를 않으며, 따라서 당신도 그들에게 信義를 증히 지킬 필요가 없다. 게다가 君主에게는

26) 林明芳·韓昇助 譯, 1985, 앞의 책, 72쪽.

27) 鄭仁興, 『西歐政治思想史』(서울: 博英社, 1985), 155쪽.

28) 金玟河 譯, 윌리엄 에베스타인, 『政治思想史』(서울: 日新社, 1974), 169쪽.

29) 林明芳·韓昇助 譯, 1985, 앞의 책, 76쪽.

30) 林明芳·韓昇助 譯, 1985, 앞의 책, 77쪽.

信義의不履行도合法的으로妥當化할機會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우의氣質을巧妙하게扮裝할 줄 알아야 하며, 이것은 절대로必要하다는 것이다. 더구나人間이란 극히 단순하기 때문에 目的의 必要性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쉬워서 속이려 들면 얼마든지 속게 마련이라는 것이다.<sup>31)</sup>

이상에서 살펴 본 마키아벨리의人間觀은 스스로의表現속에서 矛盾을 드러낸다. 즉,人間을 邪惡한 것이라 정의하는 한편, 싸움의 方法으로人間 本然의 길인 道理에 의한 것과 野獸의 짓인 힘에 의한 것<sup>32)</sup>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人間 本性이 邪惡하다는 것과人間 本然의 길인 道理라는 것은 相馳되는 表現이다. 또한 제 17장에서 “정작 危險이 닥치게 되면, 그들은 금방 등을 돌린다”는 表現은 “당신이 恩惠를 베푸는 동안은 모두가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며, 피(血)도, 財産도, 生命도, 아들마저도 당신에게 바친다”는 表現과 相馳된다. 즉, 후자의 경우 자체가 극심한 危險을 內包한 行爲이기에 새롭게 “危險한”이란 表現을 使用하여 구분하는 것은 自家撞着이다.

더우기 韓國政治狀況과 관련하여 볼 때, 마키아벨리의人間觀은 단지 少數의 힘-특히 軍事力-을 통하여 權力을 掌握한 階層에서만 그 적실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마키아벨리가 제 15장에서 사람에게 대한 評判을 兩分하였듯이<sup>33)</sup>,人間 本性은 性惡說的인 면도 있지만 性善說的인 면도 있다는 점을 強調해야 했을 것이다. 그가人間의 本性에 대한 一般法則을 정해놓고,人間에 대한 文化의 影響을 無視하며,人間의 本性이 실제로 善이기도 惡이기도 하지만 政治의 目的으로서 惡이라 取扱하기로 決定한 것은<sup>34)</sup>人間 本性 兩面의 한 면에만 그 強調點의 限界를 設定하였다는 점에서 批判을 면치 못한다. 특히, 韓國政治狀況의 커다란 한 획으로 계속 작용할 5·18光州 民主抗爭 기간동안에 죽어간 사람들의 本性을 마키아벨리적 視覺으로 邪惡하게 본다면, 그것은 너무도 큰 誤謬일 것이다. 마키아벨리의人間觀은 政治的 現實 分析에 있어서 많은 眞實을 暴露하면서도 斷切性, 즉 政治的 世界에人間性을 固定化시켜 限定하였다는 事實에 批判의 여지가 있다.

31) 林明芳·韓昇助 譯, 1985, 앞의 책, 79쪽.

32) 林明芳·韓昇助 譯, 1985, 앞의 책, 78쪽.

33) 林明芳·韓昇助 譯, 1985, 앞의 책, 72쪽.

34) 차하순 역, 브포노프스키·메즐리시 共著, 『西洋의 知的 傳統: 다빈치~헤겔』 (서울: 學研社, 1986), 52쪽.

3. 國家觀<sup>35)</sup>

마키아벨리의 염두에 一貫된 理念은 祖國·榮光·힘이다. 그리고, 祖國이란 한 마디로 集約할 수도 있지만, 힘과 榮光없는 祖國은 상상할 수 없으므로, 이들은 三位一體의 관계에 있다.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여기서 祖國이란 물론 로마의 後光으로써의 이탈리아 全半島를 뜻하며, 敎皇이나 신성 로마제국의 皇帝가 支配하는 限定된 獨立과 自由가 아니고, 外勢로부터 완전 獨立하고 自治權이 充分히 行使되는 統一祖國을 일컫는 것이다.<sup>36)</sup> 祖國은 그에겐 地上에 있어서 唯一한 絶對의 存在였다. 여기에서 그가 中世期的 國家觀을 완전히 脫皮하여, 國家至上主義의 現代的 國家觀을 가진 것을 發見하게 된다. 國家는 神의 攝理에서가 아니고 그 자체의 尊嚴性에서 存在하며, 그러기에 國家의 法은 絶對의이며 個人은 國家內에서만 그 存在 理由와 目的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國家를 떠난 個人은 상상할 수도 없고, 道德과 宗教도 國家의 法과 一致함으로써만 그 生命이 發揮되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國家의 法과 命命은 國民 모두가 尊敬하여 받들어지는 것이므로, 그 根源을 “國民의 소리”(vox populi)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主張하였다.<sup>37)</sup>

마키아벨리는 人間을 다스린, 또는 아직 다스리고 있는 國家나 主權集團을 共和國 아니면, 君主國의 어느 하나라고 단정하였다.<sup>38)</sup> 또한 그에 의하면, 血統이 옳은 君主의 支配下에 있었던 世襲君主國이 새로운 君主國보다 다스리기가 훨씬 수월하며, 그 이유로 전자의 統治 경우에 있어서는 祖上이 행한 政策을 충실히 지키고 동시에 不意의 事故에 適切히 對處하기만 하면 充分하기 때문이다. 이것만 지킨다

35) 마키아벨리의 國家觀에서 대해서는, 그의 『君主論 The Prince』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작품 가운데 하나인 『共和國論 Discourses』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는 리비우스의 『로마史 History of Rome』라는 책 가운데 첫 10년 동안에 관한 論評이다. 특히, 그것은 리비우스의 책을 읽음으로써 얻은 一連의 省察로 세 개의 主要한 論點으로 構成되어 있다. 즉, 어떻게 國家들이 形成되며 政府들이 組織되는가, 어떻게 國家들이 征服 혹은 기타의 手段으로 擴張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들의 必然的인 衰亡이 가능한 한 沮止될 수 있는가에 관한 論點으로 나누어져 있다. 김홍명 譯, 1986, 앞의 책, 39쪽. 그러나, 이 글에서는 論題와 관련된 批判에 限定하고자 한다.

36) 林明芳, “마키아벨리의 思想과 君主論,” 林明芳·韓昇助 譯, 1985, 앞의 책, 23쪽.

37) 林明芳, 1985, 앞의 글, 24쪽.

38) 林明芳·韓昇助 譯, 1985, 앞의 책, 33쪽.

면 뜻하지 않은 強力한 勢力에 의해 그 자리를 빼앗기기 전에는, 君主는 평범한 能力만 가지고서도 國家를 充分히 維持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39</sup> 그는 이러한 實例로 이탈리아의 페라라공을 드는데, 그는 世襲的인 支配者의 後繼者가 아니었던들 1484년에 있었던 베네치아軍의 攻擊이나, 1510년에 올리우스 2세 敎皇의 攻擊에 견디지 못하였을 것이다.<sup>40</sup>

마키아벨리는 “國家란 무엇인가?”라는 質問이나 이에 대한 答辯도 결코 試圖하지 않았으며<sup>41</sup>, 그의 國家觀은 다음과 같은 批判의 여지가 있다. 즉, 그는 國家를 君主國과 共和國이라는 兩分法的인 單純 概念으로 圖式化하였는데<sup>42</sup>, 오늘날 韓半島에서 펼쳐지고 있는 民主國家 내지 疑似 民主國家, 共產國家 내지 疑似 共產國家의 形態등에 대한 未來的 洞察力이 없었고, 過去 및 現實에 대한 分析에 限定하였다. 또한, 世襲君主國이 새로운 君主國보다 다스리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했는데, 우리의 경우와 比較했을 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즉, 世襲이라기보다는 承繼의 性格을 띠었다고 볼 수 있는 제 6공화국의 統治權者는 제 5공화국 및 그 이전 공화국의 不安定과 腐敗 및 無秩序를 동시에 承繼하였기 때문에 懸案의 解決보다는 過去 問題의 解決에 足鎖가 채워져 새로운 공화국으로써의 出帆보다도 더욱 어려운 困境에 처하여 國力を 浪費하였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러한 事實은 世襲君主 혹은 承繼統治權者<sup>43</sup>가 國家의 힘을 決定짓는 가장 強力한 構成 要素인 正統性<sup>44</sup>을 兼備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正統性 등을 兼備한 새로운 君主國보다 다스리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實例이다. 특히, 國家가 世襲的이든 새로운 形態이든, 現代의 國際政治秩序內에서는 統治者의 평범한 能力만으로는 國家를 維持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마키아벨리는 批判을 면치 못한다.

39) 林明芳·韓昇助 譯, 1985, 앞의 책, 33쪽.

40) 林明芳·韓昇助 譯, 1985, 앞의 책, 34쪽.

41) 김홍명 譯, 1986, 앞의 책, 56쪽.

42) 이것은 그가 가장 친숙했던 國家의 形態가 中世的인 것도 近代的인 것도 아닌 조그만 이탈리아 共和國인 데도 일부 原因이 있다. 김홍명 譯, 1986, 앞의 책, 45쪽.

43) 본인은 제 6공화국의 最高 統治權者가 최소한 6·29宣言 이전에 제 5공화국 統治權者로부터 指名받은, 또한 5·17쿠데타의 주된 同類 勢力으로 關與하였다는 次元에서 承繼統治權者라 칭함.

44) J. S. Migdal, "A Model of State-Society Relations," in H. J. Wiarda(ed.), *New Directions in Comparative Politics*(Boulder and London: Westview Press, 1985), p. 50.

## 4. 運命論

마키아벨리의 運命論과 관련된 表現들은 다음과 같다.

“運數에 의하지 않고 자기 力量으로 君主가 된 人物들을 볼 때, 그 중 卓越한 人物은 모세, 사이러스(Cyrus), 로물루스, 테시우스를 例로 들 수 있다. 그 중 모세는 神의 命令에 따라 行動한 사람이었기에……그것만으로도 讚揚의 對象이 될 수 있다. 그 외에 上記한 人物들은……運數面에서 볼 때, 좋은 機會를 가졌었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고, 이 機會는 그들에게는 材料가 되었을 뿐, 그 材料를 갖고 어느 作品을 만든 것은 역시 그들 자신이었다. ……機會는 그들에게 偉大한 精神力을 불어 넣어 주었고, 반면에 이들에게 그러한 力量이 없었다면 이러한 機會는 水泡로 돌아갔었을 것이다.”<sup>45)</sup>

즉, 마키아벨리는 運數 및 機會라는 表現을 使用하여 機會의 捕捉 및 活用能力을 強調한다.

또한 그는 오랜 期間에 걸쳐 君位에 앉아 있었던 이탈리아 君主들이 나라를 잃었다고 해서 그 責任을 運命으로 돌려질 수는 없으며, 전적인 責任은 이 君主들 스스로가 無力한 데 있다고 한다. 즉, 그들이 평온한 時代에 살면서 닥칠 수 있는 變化를 豫想하지 못했다는 데에 責任을 둔다.<sup>46)</sup> 마키아벨리는 運命이 人間活動의 半을 마음대로 制定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머지 半은 우리들의 支配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疑問을 提起한다. 나아가, 運命이란 抵抗이 準備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그 힘을 發揮하고, 阻止할 만한 障礙物이 없으면 더욱 그 猛威를 떨친다는 것이다.<sup>47)</sup> 또한 그에 의하면, 運命에 전적으로 依存해 버리는 君主는 運命의 바뀔에 따라 滅亡할 수가 있는 데, 世上의 變遷에 따라 자기의 나아갈 길을 일치시키는 사람은 成功하며, 반대로 時代와 자기의 處身이 어긋나는 사람은 困難을 면치 못한다. 더우기, 서로 다른 두 가지 行爲가 한 結果를 가져올 수도 있고, 同一한 行動이 相反되는 結果를 招來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늘 좋을 수

45) 林明芳·韓昇助 譯, 1985, 앞의 책, 45~46쪽.

46) 林明芳·韓昇助 譯, 1985, 앞의 책, 101쪽.

47) 林明芳·韓昇助 譯, 1985, 앞의 책, 102~103쪽.

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慎重하고 참울성있게 統治하는 方法이 時代의 性格이나 狀況에 適合하다면, 이로써 그 君主는 繁榮할 것이다. 반대로 時代의 性質이나 狀況이 이에 맞지않는 데도 不拘하고 그가 자기의 方法을 固執한다면, 이로써 滅亡할 것이라고 한다.<sup>48)</sup>

이상에서처럼 마키아벨리는 運命을 人間의 抵抗을 통하여 克服할 수 있는 것으로 描寫하고 있다. 그러나, 수 많은 時·空間의 變化 속에서 人間, 특히 韓半島에 居住하였던, 居住하는 사람들의 目標은 완전히 克服되지 않은 채로 되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마키아벨리의 運命論이 단지 充分한 情報(information)와 意思 疏通(communication) 및 短期間이 前提된 巨視的 豫言이 可能한 경우에만 그 적실성을 갖게 됨을 露呈한다.<sup>49)</sup>

또한 마키아벨리는 運命을 人間活動과 別個의 것으로, 人間活動을 통하여 克服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데, 運命 또한 天災地變과 같은 例外的인 경우를 除外하고는 人間活動의 產物이 아닌가? 예를 들어, 韓國이 日帝治下에서 36년간의 쓰라린 植民統治를 겪고, 美國과 소련에 의하여 南·北韓으로 分斷되어 있음을 井底蛙的 次元에서는 運命으로 밖에 돌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理由는 分明히 人間活動의 場인 國際政治의 力學關係에서 비롯되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어쨌든 마키아벨리의 運命論이 모든 탓을 人間으로 歸着시킨다는 事實은 鼓舞的이다 할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運命의 神을 女神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그 녀를 征服하려면 亂暴하게 다루어야 하고, 運命은 냉정하게 사는 사람보다도 暴力的인 사람에게 더 유순한 것으로 보았다.<sup>50)</sup> 이러한 그의 運命觀은 繼續的인 暴力이 前提될 경우에는 可能할 것이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文은 武보다 강한 境遇가 있다’는 事實<sup>51)</sup>을 看過하였다고 볼 수 있다.

48) 林明芳·韓昇助 譯, 1985, 앞의 책, 103쪽.

49) 세이빈과 솔슨 또한 마키아벨리의 哲學이 매우 地方的이었고 短期間的이었다는 批判을 가하고 있다. G. H. Sabine, & T. L. Thorson, 1973, 앞의 책, p.329; 成裕普·車南姬 譯, 1992, 앞의 책, 470쪽.

50) 林明芳·韓昇助 譯, 1985, 앞의 책, 104쪽.

51) 事件의 時間的 順位(sequences)에 의하여, 文과 武 相互間의 一方的·持續的인 완전한 勝利란 斷定키 어렵다는 것이 歷史의 例證이라 할 것이나, 미흡하나마 韓國政治狀況과 관련한 適切한 예는 6공이 들어섬과 더불어 시작되었던 “5공특위 및 광주특위”의 活動과 관련된 歷史의 反轉을 들 수 있다.

#### IV. 韓國의 政治狀況에 『君主論』이 주는 教訓

이제 그 終了를 얼마남겨 놓지 않고 있는 제 6공화국은 그 出帆과 더불어 제 5공화국의 不正과 非理에 얽매어 허덕여 온 不安定한 政局의 連續이었다. 그것은 6공화국의 출발이 國民의 直接 選舉에 의한 대통령 선출이라는 正統性과는 관계없이 제 5·6공화국의 連繫性에 기인한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 6공화국은 國民 모두가 納得하고 理解하여 줄 수 있는 適切한 “희생양”을 내세울 必要가 절실했다. 그러나, 結果의으론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6공화국은 國民으로부터 信賴를 더욱 잃었었으며, 國力은 最大로 浪費 및 非生産的인 길로 곤두박질하였었다.

이러한 제 6공화국 政治狀況下에서 - 또한 次期 統治權者의 立場에서도- 『君主論』의 제 7장 및 제 9장의 다음 귀절은 吟味되어질 必要가 充分히 있다고 본다.

“公은 클론나가의 두목들을 分裂시키고, 오르시니가에 대해서도 같은 機會를 노리고 있었는데, …… 이후 공의 여러 占領地에서 叛亂이 일어나 공은 큰 威脅을 겪게 되나, 프랑스軍의 힘을 빌어 이를 鎮壓시키는 데 成功하였다. 이제 다시 權力을 確立한 공은 더 이상 外部勢力의 힘을 빌리는 것을 피하고… … 오르시니가 쪽에서 提議한 和解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같이 하여 상대방을 安心시켜 놓고…… 상대방의 두목들을 쳐부수고…… 民心을 掌握하고 훌륭한 自己 勢力이 생겼다고 믿게 된 것이다. ……公은 바로 이 秩序를 바로잡아 平和를 되찾고, 君主의 榮光을 위해서 善良한 政治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非情한 人間이나 재치있는 래미로 데 오르코를 그 地方에 全權을 주어 派遣하였는데, 그는 단시일 내에 平和를 回復하는 秩序를 確立하여 名聲을 떨치게 되었다. 그 후 ……그때까지의 모든 非行은 공의 짓이 아니고 오르코의 짓이라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었고, ……오르코의 시체를 피묻은 칼과 함께 매달아 놓았던 것이다. 이 참혹한 광경은 민중의 울분을 풀어 주기는 하였으나 …….”<sup>52)</sup>

이상의 글이 뜻하는 것은 難局, 특히 韓國政治狀況의 不安定을 打開할 方案으로 最善은 아니다하여도, 次善策으로 改革을 위한 “희생양”의 適切한 使用의 必要性을 提示하여 준다할 것이다. 특히, 우리 政治狀況은 “희생양” 이상의 犯罪人이 많다는 데서 이러한 점의 考慮는 術數로서보다는 正手로서의 實行이 더욱 절실하다 할 것이다.<sup>53)</sup>

52) 林明芳·韓昇助 譯, 1985, 앞의 책, 50~51쪽.

또한 마키아벨리는, 君主는 항상 民衆을 자기편으로 잡아두어야 하며, 어느 君主가 民衆 위에 土臺를 構築하고 이들을 능히 指揮하며, 용기백배하여 不運에도 굴하지 않고 만반의 態勢를 취하여 단호한 決意와 行動으로 民衆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強調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君主는 그들에게 속을 일이 없을 뿐더러, 자기 自身도 이미 確固不動한 터전 위에 놓여 있다는 事實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賢明한 君主는 항상 어떤 事態가 벌어지든 民衆들이 반드시 自己가 必要하도록 느끼게 해주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民衆은 君主에 대해 항상 변함없는 忠誠을 바칠 것이라고 한다.<sup>53</sup>

이상은 韓國의 統治權者가 銘心하여야 할 事項이며, 진정한 民主國家를 指向함에 있어서 國民의, 國民에 의한, 國民을 위한 政治모델과 관련하여 思考케하는 統治觀이라 할 것이다.

## V. 맺음말

이제까지의 수 많은 研究에도 不拘하고, 마키아벨리의 『君主論』을 韓國政治狀況에 批判·適用하는데 대한 一致된 見解와 해석은 全無한 형편이다. 아마도 그 根本 理由는 『君主論』의 限定성과 韓國政治狀況 및 韓國政治論의 限界性에서 露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의 主要 著書인 『君主論』을 중심으로 韓國政治狀況과 관련하여 그의 政治思想을 네 가지 基準으로 區分하여 分析·批判해 보았다. 또한 現 韓國政治의 不安定을 勘案하여, 『君主論』의 제 7장 및 제 9장이 示唆하는 教訓을 살펴보았다.

『君主論』의 分析·批判을 통하여 우리는 마키아벨리가 그의 政治思想과 方法에 있어서 經驗的 方法의 使用과 研究의 軸점을 人間活動에 두고, 實證的·現實的 規則에 의해 統治術과 國家觀 및 運命論을 人間性的 基本的 態度를 바탕으로 하여 그의 思想을 펼침을 알 수 있다.

53) 특히, 하나의 術數的 方式으로 “희생양”을 使用할 시에는, ‘慘酷한 光景을 目擊한 民衆이 同時에 君主에 대한 새로운 恐怖를 느끼게 된다’는 事實을 마키아벨리는 指摘하고 있다. 林明芳·韓昇助 譯, 1985, 앞의 책, 51쪽. 따라서, 더욱 올바른 方式으로 이에 대한 實行이 要求된다.

54) 林明芳·韓昇助 譯, 1985, 앞의 책, 58~59쪽.

따라서, 마키아벨리를 단순히 '道德의 破壞者'니, '目的을 위해서는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다'는 등의 評價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의 政治思想은 16世紀의 이탈리아라는 時代的 狀況 속에서 나온 것으로서 理解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現實政治에만 너무나 치중한 나머지 自己保存, 物質的 成功, 領土의 膨脹, 그리고 強力한 힘만을 地上의 道德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기면 德이요, 敗北는 不德으로 看做하고 여타의 價値는 오로지 勝利의 目的을 위해 犧牲되어야 한다는 論理를 展開하였기에 진정한 意味의 政治哲學者가 아니라 手段을 重要視하는 便宜主義者요<sup>55)</sup>, 동시에 理想보다는 힘에 의존한 現實主義者였다는 점에서 批判받아 마땅하다. 또한 現代의 政治形態를 中心으로 볼 때, 마키아벨리의 權力의 絶對的 手段視와 政治의 道德性에 대한 無視는 오늘날 民主政治를 追求하는 韓國政治와 관련하여 볼 때 批判을 면치 못할 것이다.

55) 徐正甲 譯, C.J. Friedrich 著, 『政治思想講座』(서울: 法文社, 1981), 144쪽.

## 참고 문헌 :

## 1. 국내 문헌:

- 具永壽, “마키아벨리의 政治思想에 關한 小考,” 동의대 地域社會開發研究所 外, 『東義法政』, 第 5輯(1989).
- 琴鍾友, “Machiavelli思想에 있어서 道德問題에 關한 一考察,” 경북대학교, 『논문집』, 제 6집(1962.12.).
- 金玟河 譯, 윌리엄 에베스타인, 『政治思想史』(서울: 日新社, 1974).
- 金飛煥, “마키아벨리 政治思想의 르네상스적 성격,”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首善論集』, 第 10輯(1985).
- 김홍명 譯, J. 플라르나츠 著, 『政治思想史』(서울: 도서출판 풀빛, 1986).
- 徐正甲 譯, C.J. Friedrich 著, 『政治思想講座』(서울: 法文社, 1981).
- 成裕普·車南姬 譯, 『政治思想史』(서울: 한길사, 1992).
- 安完起, “韓國政治에서 平和民主黨의 特性에 關한 研究,”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1991. 2. 22.).
- 林明芳·韓昇助 譯, 『君主論·리바이어던』(서울: 三省出版社, 1985).
- 鄭仁興, 『西歐政治思想史』(서울: 博英社, 1985).
- 鄭仁興, 『政治思想家評傳』(서울: 養英閣, 1983).
- 차하순 역, 브포노프스키·메즐리시 共著, 『西洋의 知的 傳統: 다빈치~헤겔』(서울: 學研社, 1986).

## 2. 국외 문헌:

- Gettell, Raymond G., *History of Political Thought*(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24).
- Machiavelli, Niccolo, *The Prince and The Discourses*, translated from the Italian by Luigi Ricci, Revised by E. R. P. Vincent(New York: The Modern Library, 1950).
- Migdal, J. S., “A Model of State-Society Relations,” in H. J. Wiarda(ed.), *New Directions in Comparative Politics*(Boulder and London: Westview Press, 1985).
- Plamenatz, J., *Man and Society: Political and Social Theory*, in 2vols.(New York: McGraw-Hill, 1963).
- Sabine, George H., & Thorson, Thomas L., *A History of Political Theory* 4th ed.(Hinsdale, Illinois: The Dryden Press, 1973).

## 3. 기타

한국일보, 1989년 3월 17일자.